

세월과 역사의 흔적 새겨진 우리의 얼굴

국립민속박물관 펴냄 「한국인의 얼굴」

웃고, 울고, 찡그리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천진난만하고, 사악한 표정이 나타나는 인간의 간판. 이것이 바로 얼굴이다. 얼굴은 성별, 지역, 민족,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역사적 상황과 사회경제적 여건, 영양상태 등에 따라서도 그 모습과 상태가 변한다.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쉽게 가려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얼굴에 나타난 우리의 특징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얼굴을 가진 민족인가?” 대답하기 곤란한 이 질문에 마땅한 답을 찾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한국인의 얼굴전’ 전시물을 도록으로 엮은 「한국인의 얼굴」(국립민속박물관 엮음, 신유)은 그 헌답을 제시하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한국인의 얼굴이 모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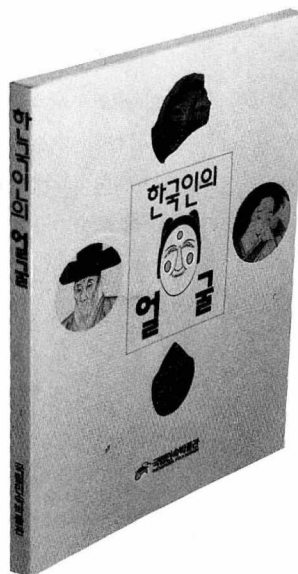
도록에 실린 전시문화재는 개인 및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던, 한국인의 얼굴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들. 여기에 조흥윤(한양대, 민족학), 배기동(한양대, 고고학), 조용진(서울고대, 예술과학), 최창석(명지대, 정보통신공학) 교수 등이 쓴 여섯 편의 논문이 있어 한국인의 얼굴을 종합적으로 '보고 읽게' 해준다. 이 책은 또한 한국인의 얼굴 史뿐만 아니라, 3부에 걸친 도록과 해설, 연구논문, 도판목록 등에서 얼굴변천사나 문화사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이 책은 우선 선사유물, 불상이나 탱화, 고분벽화, 토우, 장승, 탈, 巫俗畫에 표현된 얼

이 책은 선사유물, 불상이나 탱화, 고분벽화, 토우, 장승, 탈, 무속화에 표현된 얼굴과, 외국인이 본 우리의 얼굴 등에서 '역사 속의 얼굴'을 찾고 있다. 하지만 책을 뒤적이다 보면, 그 표현법이 다를 뿐 각 양식에 나타난 얼굴들은 분명 우리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어떤 얼굴을 가진 민족인가?" 이 질문에 헌답을 제시하고 있다.

굴과, 외국인이 본 우리의 얼굴 등에서 '역사 속의 얼굴'을 찾고 있다. 하지만 책을 뒤적이다 보면, 그 표현법이 다를 뿐 각 양식에 나타난 얼굴들은 분명 우리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현대 한국인의 평균 얼굴을 계측적으로 복원해 보면,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다른 한국인만의 인상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인의 인상을 형성하는 여러가지 요소 중 가장 큰 특징은 이마가 좌우로 좁은 뾰족한 형에, 눈이 작고 코의 길이가 짧으며, 턱이 크고 콧망울 있는 부분이 들어간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상은 의지가 굳고 사려가 깊은 형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주위 민족들에 비해 눈이 작고 턱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사납거나 무뚝뚝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책에서는 원로 연구인 고설봉씨의 얼굴을 예로 들어 한



국인의 얼굴을 보여준다.

조흥윤 교수는 「한국인이란 누구인가」라는 논문을 통해 깊은 눈, 두드러진 광대뼈 등에서 풍기는 한국인의 얼굴에 나타나는 특성을 다음 세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첫째, 지혜롭고 관조적이며 고집스럽다. 둘째, 착하고 이타적이고 꾸밈새 없으며 밝다. 셋째, 끈질긴 인상을 준다.”

개인의 얼굴에 그 사람이 단정적으로 드러나듯, 한국인의 얼굴에는 한국 사람의 공통된 심성과 마음상태가 특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심성과 마음 상태는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한 민족의 얼굴에는 그 민족의 문화가 잘 나타나 있다. 조흥윤 교수는, 오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로 생긴 또 다른 한국인의 얼굴도 발견하는데,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며 탐욕적이고 엄숙하며 이중적인 얼굴”이 그

것이다. 조흥윤 교수는 상반된 얼굴이 동시에 발견되는 연유를 “고절적 체제문화의 비인간적 성격”에서 찾고 있다.

한편 불교조각은 이상적인 한국인의 얼굴을 보여주는 첨예한 예라 할 수 있다. 각 나라에서 발전된 불교조각에는 그 지역 또는 민족 특유의 얼굴형이나 표정이 은연중에 반영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불상에는 우리의 얼굴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얼굴이 둥글고 복스럽게 생긴 조그마한 불상들과 함께, 네모진 얼굴에 크게 뜬 두 눈, 넓은 코, 그리고 티없는 웃음을 머금고 있는 '백제의 미소' 서산 마애삼존불상. 이 얼굴들에는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천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석굴암 본존의 얼굴이나 탱화에 나타난 송고함도 한국인의 얼굴이다.

단순화된 했지만 토우나 장승에서도 인간의 오욕칠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우리의 얼굴들을 엿볼 수 있다. 하회탈놀이에서 쓰이는 탈 또한 우리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이목구비가 반듯한 선비탈, 불균형이 극심한 초랭이탈이나 이매탈, 콧날이 휘어진 부네탈과 각시탈 등은 백역에 따라 인물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얼굴들이 모두 우리의 얼굴이라는 점에서 책 전반에 걸친 얼굴을 종합하면 한국인의 얼굴을 마음 속으로 그려볼 수 있음직하다.

책 통해 미민변천사 살피는 것도 재미

머리뼈의 생김새로 본 한민족의 기원, 한국인의 머리 생김새에 대한 체질인류학적 특징,

■ 심판사략(十八史略)이란?
중국의 정사 26종 중 시마천의 사기(史記)에서 탁극택의 송사(宋史)까지 18가지의 정사를 원나라 때 증선거가 심판사략으로 요약한 책.

지금, 4천년 중국 역사의
주역들이
고우영의 유머와 해학속에
다시 태어난다.

고우영 만화 심판사략

중국 역사중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사료와 인물들을
총망라하여 뛰어난 경영전략, 인생지략은 물론 삶의
철학과 깊이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가: 5,000원(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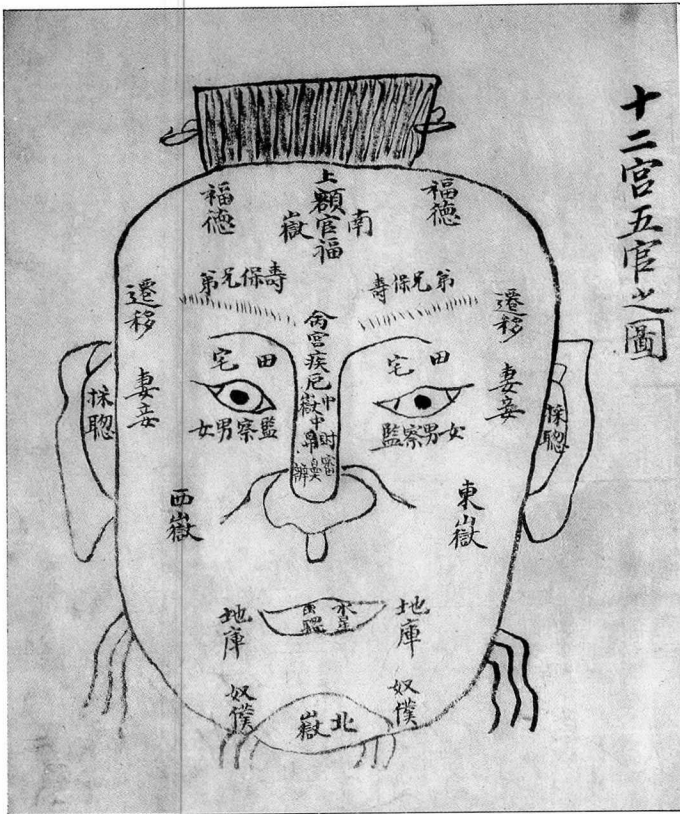
총 10권의 고우영 대하 만화소설-만화 심판사략

- | | |
|-------------------|--------------------|
| 1 삼황오제에서 서주(西周)까지 | 6 후한(後漢)시대 |
| 2 춘추(春秋)시대 | 7 삼국(三國)시대 |
| 3 진국(戰國)시대 | 8 남북조(南北朝)시대 |
| 4 시황제(始皇帝)의 천하통일 | 9 당(唐)의 흥망 |
| 5 형무(項羽)와 유방(劉邦) | 10 북송(北宋)·남송(南宋)시대 |

총 10권 중 ①②권은 절찬리 판매중!!

동아출판사
☎ 861-4818





한명회 얼굴상을
자로 재서 평가하는
등 조선시대 이전부터
관상학이 발전했다.
시진은 조선시대에
그려진
'12궁5관지도'.

사진속의 얼굴, 미인관의 변화 등 '얼굴의 변천'도 이 책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책에서는 얼굴형태를 통해 한국인의 유입 경로를 추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머리뼈 화석이 출토되어 형태학적 특징을 조사할 수 있는 시기는 약 4만년 전의 후기구석기시대부터. 여러 유적지에서 출토된 머리뼈를 계속해 보면 긴머리형, 짧은머리형, 중간얼굴형 등이 나오는데, 한국인 머리뼈의 가장 큰 특징인 짧은머리형과 높은머리형은 신석기시대에 시작되어 청동기시대에 완전히 형성되었다고 여겨진다고 한다. 또한, 청동기시대의 국가인

고조선은 주로 높은머리를 가진 집단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유전적 특징이 현대까지 계속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얼굴은 변한다. 조용진 교수는 "한국인 얼굴의 세로 길이는 186.34mm로 일제시대 때보다 길어졌고, 이마나 중안도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넓어졌다"면서 그 변화를 논문 「한국인 얼굴 변화」에 상세하게 적고 있다. 조용진 교수가 본 한국인 얼굴의 최근 변화는 "이마가 커지고 광대뼈와 턱이 작아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얼굴의 가로폭에서 변화가 크게 일어난 셈이다. 또한 조용진 교수는 "앞으로의 변화는 새로운 방향

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새로운 방향이란 유전적으로 우성을 띠기 쉬운 남방계적 희귀일 수밖에 없다. 남방계적 용모란 대체로 이마가 넓고, 정수리가 낮고, 진한 눈썹에 큰 눈, 두꺼운 입술, 피하지방의 발달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런 방향의 유전적 조성의 변화 위에 음식물 등 환경적 요소가 작용하여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인 변천사를 이 책에서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현대 미인은 쌍꺼풀이 진 큰 눈에, 코와 입이 크고 광대뼈 있는 중안이 발달한 형으로서, 적극적이고 활달한 인상을 띠고 있는 반면, 신석기시대의 미인은 여신으로 상징된다. 양산 신암리에서 출토된 토우는 커다란 유방, 잘록한 허리, 과장된 둔부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의 미인은 아마도 그런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구려의 미인은 좁은 이마에 등근턱으로 살져어 보이고 오뚝한 코, 작은 입, 각이 진 눈썹이 그 특징이다(덕흥리 고분의 직녀). 미인의 모습은 안악 2호분에 그려진 飛天에도 나타난다. 이 비천은 균형잡힌 얼굴형태에 고전적인 미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작고 붉은 입술을 살포시 벌리며 웃고 있어 고구려 미인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밖에 여러 문화유적에서 미인관을 살펴볼 수 있지만 조선시대의 회화만큼 미인의 형상을 온전하게 보전하고 있는 유물도 드물다. 조선시대에 그려진 회화에서 미인은, 쌍꺼풀이 없는 가는 눈, 작은 눈동자, 작은 코, 작은 입에 중안이 오목한 얼굴형의 옛된 모습으로 복원된다. 이로보아 우리 선조들은 고즈넉하고 옛된 모습에 다소곳한 인상의 여인을 미인

으로 여긴 듯하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유지하기 보다는 서구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다. 개성을 '숭상'하는 '오늘날의 미인'들은 오히려 '만들어진 미인' '성형미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천연일물적인 화장법이나 의상 때문에 길 옆을 지나가는 여성이 '어디선가 본듯한 그 여인'으로 비치기도 한다.

첨단과학분야에 더 필요한 얼굴

얼굴은 이제 미인 판별 기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첨단과학분야에서 얼굴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최창석 교수는 논문 「얼굴과 테크놀로지」에서 "한 사람의 얼굴은 몇 사람의 얼굴의 합성"이라는 가설에서 출발, "얼굴인자를 분석해 보면 그리 많지 않은 수로 우리 민족의 얼굴을 모두 합성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러한 인자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기원을 더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얼굴에서 얻은 정보를 영상전화, 방송,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무인안내 시스템 등에 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얼굴은 자신이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얼굴의 변천사나 얼굴의 첨단과학활용 방안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는 경구로 받아 들여진다. 이 책 「한국인의 얼굴」은 각자의 얼굴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성수 기자

문화여행 가이드

즐기면서 배우는 전국의 생생한 문화현장 400곳 —

보고, 느끼고, 배우면서 즐길 수 있는 알짜배기 문화 길라잡이 "문화여행 가이드"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문화 현장들을 8개의 장르로 나누고, 표제어 장소 172곳을 포함해서 총 400여 곳을 찾아 소개하고 있는 주제별 여행 정보의 울 가이드.

•조정환 편저 / 46판 / 288쪽, 값 5,000원



- PART 1 : 의·식·주·건강 정보여행
- PART 2 : 공예·민속품 감상여행
- PART 3 : 보고 듣는 문화여행
- PART 4 : 오락·레저·이색블거리여행

- PART 5 : 산업·사회 견학여행
- PART 6 : 동·식물 관찰여행
- PART 7 : 자연·우주 관측여행
- PART 8 : 역사 탐구여행

서울 북맵

책! 정보전쟁시대의 휴대품 이책은 말한다. 문제는 정보이고 편리함이란 것을. 책의 정보, 각종 서점·도서관에 관한한 앞서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책은 고안되고 편집되었다. 집어라! 그리고 그때 그때 빨리 읽고 책의 정보전쟁에서 승리하라.

•조정환 편저 / 46판 / 280쪽, 값 4,500원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5991
팩시밀리 739-2129